

一〇 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一一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노릇이냐.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
 一二 데 그 중에 하나 이 길을 잃었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산에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았느냐. 내가 진실
 一三 로 너희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이 소자
 一四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혹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
 一五 하거든 가서 그 사람이 나와 홀로 있을 때에 책망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
 一六 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써 말마다 증참하여 만일 그 말도 듣기 싫어하거든
 一七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기 싫어하거든 이방 사람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실로 너희게 이르
 一八 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
 一九 리라. 내가 다시 너희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二〇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대개 어디든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二一 중에 있으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
 二二 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 -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오직 일흔 번씩
 二三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려고 천국은 어떤 임금의 종과 회제하는 것 같으니. 회제할 때에 금 만냥 중
 二四 빛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분부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있는 것을 다 팔
 二五 아 값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없드려 절하고 가로되 주여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주인이
 二六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다가 제게 백냥 빛진 동판 하나를 만나

二七 곧 불쌍히 목을 잡고 가로되 빛을 갚으라 하며 그 동판이 없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
 二八 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판들이 그 하는 것을 보
 二九 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하던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가로되 악한
 三〇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빛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 동판을 불쌍히 여기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三一 같이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빛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불었으니. 너희 각 사람이 참
 三二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도 이와 같이 너희게 하시리라.

一 一九 예수 -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
 二 거늘 예수 - 거기서 병인들을 고치시니라. ○ 바리새교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三 연고로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 -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내신 이가 처음
 四 부터 한 사나이의 한 여인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고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며
 五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신 이 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六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와 가로되 그러하면 어찌 모세가 명하여 휴서를
 七 주어 버리라 하였나이까. 예수 -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버림을 용납하였
 八 거니와 다만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란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
 九 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행함이요 버린 여인에게 장가드는 자도 또한 간음을 행함이니라. ○ 제
 一〇 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합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예수 - 가라사대
 一一 사람마다 이 말대로 행하지 못하되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대개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 된 자도